

일본 도서관계를 이렇게 보았다

김 경 일

(국립중앙도서관 독서담당관)

하네다에서 세금을 물다

서울을 떠날 때 비행장에 나온 몇몇 친구들이 선물로 서 청자담배를 스물네갑이나 주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나의 입속에 청자담배를 물기란 어려운 일이나 그래도 담배 몇개비 피우면 도착할 수 있는 일본이라도 떠난 다니까 이렇게 귀한 청자담배가 생기게 되었고 이 담배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편 흐뭇한 생각도 들었다.

하네다에 도착한 것이 오후 4시 30분이었다. 입국수속을 밟고 일본세관을 통과할 때 세관원이 여권을 보고 나서 백속의 담배가 20갑이 넘으니 세금을 525원 물어야 한다고 한다. 이 순간 나는 화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통관규칙을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이 모처럼 국내에서도 귀한 담배를 정성어리게 주었는데 하네다에 도착하자마자 돈을 내라고 하니 누군들 화가 안나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규칙은 규칙대로 응하는 것이 도리인 즉 할 수 없어 세관원에 있는 은행출장소에서 환금하여 세금을 물고 나서 세관원에게 절절하게 한마디 하여야겠다고 심산하고

“실은 20갑 이상이면 세금을 묻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사실 몰랐다) 좀 더 누구나 잘 알도록 주시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하니 마음이 좀 풀리기는 하지만 525원이란 돈을 도착 즉시 일본에 지불하게 되니 이 손해를 무엇으로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강습해 왔다.

도서관협회 방문

일본 도서관협회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4,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이 협회가 창설된 곳이 현재의 “우에노도서관”이며 70년의 역사를 조금도 장소의 변화가 없이 발전되어 왔다. “인생 70고래회”라는 말도 있지만 7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무엇인가 기반이 굳어졌어야 할 기간이라고 생각할 때 아직도 일본 도협이 제집을 못가지고 초창기의 도협사무실이었던 “우에노도서관” 본관 뒤의

낡은 집에 그대로 정착하고 있음을 볼 때 동직의 입장에서 서운한 느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딘가 일본사회에서 돌려놓고 있지않나하는 생각마저 가지게 한다. 가노자와 사무국장의 말은 신축할 데지는 마련되었으나 건물을 지을 돈이 없어서 아직 이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협의 사무국 조직은 총무부, 조사부, 출판부, 사업부 등 네부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본의 다른 직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협 사무국의 조직과 좀 다른 점은 사업부의 활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사업부에서는 순전히 장사만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사업으로서는 각 도서관으로 부터의 도서구입의 주문을 받아 이를 일괄 구입하여 그대로 요청받은 도서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서정리의 청부까지 맡아서 구입도서의 수서, 분류, 편목, 장비 등 일체를 완전 정리하여 발송해주고 있으며 정리수수료는 책 한권당 100원(일화로)을 받고 있다. 이 도서정리의 청부사업은 비단 구입도서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의 미정리도서도 청부맡아서 정리해주기도 하고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직장 도서관으로 파견하여 정리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정리수수료가 권당 100원인데 이것이 일본도서관의 인건비와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싸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의 N도서관은 자체의 도서구입비 전액을 도협에 맡겨놓고 “선정도서목록”에 의한 구입도서만 선정하여 연락한다고 한다. 또 한가지 소개해야 할 일은 “선정도서직송”이라는 사업이다. 이 “선정도서직송”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산, 대상, 부문별 등을 결정하여 알려주면 도협에서 매주 실시하고 있는 선정도서가 결정되면 이 도서를 요청한 도서관으로 발송해 주는 사업인 것이다. 이 사업의 장점으로서 주로 지방의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구입하려고 할 때 책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는 폐단을 덜어주고 제때에 양서, 적서 등을 안심하고 신속히 구입 비치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밖에 전체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색다른 조직활동으로서 전체회원(주로개인)을 “문제별그룹”에 가입시켜 회원들의 전문지 확립을 위하여 문제별 그룹

별로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지도 육성시키는 활동이 있다. 이 문제별그룹은 우리나라의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와는 전혀 다르며 다음과 같은 분과별그룹이 있다.

- 1) 정리 기술 2) 독서운동
- 3) 참고 서지 4) 도큐멘테이션
- 5) 중소공공도서관

다음에는 내가 본 일본의 도서관계의 동향을 되찾아 보기로 하겠다.

도서관계의 동향

도서관의 전학은 지역적으로 동경, 나고야, 오오사까, 히로시마, 교오도, 도찌기 등의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들을 견학하고 끝으로 일본국회도서관을 견학하였다. 지역적으로도 동경을 제외한 몇몇 중요도시를 비롯하여 지방에까지 이르렀고 또 관중별로 볼때 각종 도서관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도서관계가 미국의 발전된 봉사형태화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현대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봉사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본 모든 도서관들이 “주제별 열람실”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완전히 이용을 위주로한 대민봉사의 동적인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인상적인 도서관으로서는 “오오사까 시립중앙도서관”의 주제별열람실 제도에 의한 대민 봉사활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적인 봉사형태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주제별 전문지식을 가진 라이브리리언이 배치되지 못하고 일반 사서가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내자의 말로서는 차차 시간이 흐르면 주제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도서관학을 공부한 라이브리리언이 배치될 때가 올 것이라는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은 하지만 내가 본 판단으로서는 일본 사회와 경제적인 여건으로서는 그것이 그리 쉽게 될수 있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왜 그런가하면 일본에서의 사서전문직의 채용이 아직 단일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국가나 지방의 공립도서관에서는 많은 직원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부관청에 직원의 증원요청을 하지만 잘 안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 사서직의 대우가 역시 다른 일반 직장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점으로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에는 개인용 연구테이블이 한 코너를 이용하여 많이 비치되어있다. 이 연구테이블은 학생들이 레포트를 쓰기위해서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초급대학과 같은 곳에서는 “강좌별 예약도서”등의 자료들이 완전 개가제로 배열되어 학생들이 학과 연구와 레포트작성에 도움이 되고있다. 대학도서관은 어느정도 학과와 직결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함을

측감할 수가 있었다.

학교도서관은 동경도의 연구지정학교인 “벵엔초부소 학교”와 “야시오고등학교”를 견학하였으나 일본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시작된지 18년이 되는 오늘의 학교도서관은 그들의 “학교도서관법”에서 지적인 교과학습과 직결시켜 운영되고 있음을 확실히 나의 눈으로 볼수가 있었다. 특히 벵엔초부소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학년별 독서지도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야시오고등학교는 담당 사서교사가 전국 학교도서관 협의회의 연구부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일본 학교도서관계에서 널리 알려진 연구적인 사서교사이다. 이 학교도서관에서는 자료대출을 편치카아드화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되어 있었고 또 열람실내에서 학생들이 떠들던 카운터 뒷면에 장치한 자동소음방지기로 하여금 신호하게 되어있으므로 실내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사서교사가 일일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조절되게 되어 있다. 또 한가지 이 학교도서관의 특징은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조직된 “야시오독서그룹”이다. 이 독서그룹에서는 독서회, 강연회, 예능감상, 문학탐색, 등의 행사를 1년에 몇번씩 가지며 방학기간에는 일본 국내의 명승 고적을 탐방하는 “명작의 여행”이라는 관광여행을 가지기도하며 재학생과 동창과의 유대를 일상적으로 밀접히하여 도서관의 시설 확충은 물론 이지만 기타 학교의 시설면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창가기제는 대부분이 이 독서그룹을 통한 동창들의 기증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정리에 있어서 대개의 도서관에서 능률화를 위해 기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실정과 비교해서 좀 다르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카아드 목록의 작성을 제록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매수를 복사하고 있으며 레이블도 여러장을 계속해서 타이핑하여 붙일 수 있게 테프식으로 만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인쇄카아드도 두곳에서 작성하여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무료배포는 주로 전국학교도서관의 자매서비스기관인 “학교도서관 북센터”에서 책을 구입하면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전국학교도서관협의회의 활동

이 협의회는 일본의 도서관협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순전히 학교도서관만을 대상 회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사무국장 이하 모든 간부직원이 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써 처음 출발부터가 굳은 신념을 가진 동지들의 결합으로 출발된 단체이다. 이 협의회의 사무국장인 “마쯔어야다로”라는 사람은 일본의 독서운동가로서도 알려진 사람으로서 유능한 활

동가이다. 조직은 각 현(우리 나라의 도)마다 지부가 있으며 매년 현자체의 연구발표대회가 있고, 2년에 한번씩 전국학교도서관연구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 참가자가 수가 평균 8,000명에서 10,000명을 넘는다고 하며 큰 행사로서 이미 기반이 굳어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는 현직 사서교사를 연구위원으로 지명하여 매년연구보고서를 지급하여 연구시키고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기도 한다. 실로 아름답고, 굳은 신념의 동지들의 직결체처럼 느끼면서 우리 나라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새삼 강하게 느꼈다.

이 협의회외의 외각단체인 “학교도서관복센터”는 마치 미국의 E.M.Center(교육자료센터)와 흡사한 기관으로서 학교도서관 협의회외의 선정에서 합격된 선정도서를 주문하면 이 주문도서에 한해서 도서관용으로 제본을 다시 견고히하고 인쇄카야드, 북카야드, 북포켓, 대출기한표, 일본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기호의 배정 등 정리와 정비 일체를 다 해서 송료도 이 센터부담으로 발송해 준다. 학교도서관의 사무적, 기술적인 첫단계의 일을 이 센터에서 전부 준비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잡다한 사서교사의 일을 덜어 주고 봉사활동에 주력할 수 있게 하려는 하나의 효과적인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도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한번 시작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학교도서관 운동은 앞으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느정도 틀이 잡혀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학교도서관을 담당한 사서교사나 학교도서관 연구자들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일본의 독서운동

일본의 독서운동은 민간단체인 “독서운동촉진협의회”

가 주동이 되고 있으며 이 단체의 경비가 출판사에서 충당되고 있다는데 알송 달송한 면이 엇보인다. 이 단체의 전국적인 지부조직은 공동도서관으로 되어있으며 활동으로서는 독서주간, 성인의 날, 독서의 노래 보급 아동우량도서 추천운동의 총본산이다. 이 단체가 주동이 되어 패전 3년후부터 국민독서 운동을 추진하여 이것이 오늘의 일본의 경성성장의 정신적인 밑거름 역할을 하였다고 이 협의회외의 사무국장인 유이씨는 자신있게 나에게 설명해 주었다. 나도 이 설명을 듣고 수긍할 수가 있었다. 더욱이 이 협의회외의 전국적인 조직활동에 있어서 공공도서관과 밀접한 연결을 가졌다는데는 좀 배울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민 독서운동으로서 성공하고 있는 한가지 방법은 “모자 20분 독서”운동이다. 이 운동의 아이디어가 “가고시마”에 있는 아동작가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아동과 모자 독서운동에서 확대되어 “중고학생 20분 독서” “성인 20분 독서운동”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일본 특유의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독서 연구자인 라이리 박사의 “25분간 독서법”이라는 데서 창안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마을 문고 운동이 외국의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과 같이 이 “모자 20분 독서운동”도 국민독서운동의 방법으로 깊이 분석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라고 확신한다.

정해진 원고 매수도 끝장이 됐으나 지금도 나의 뇌리에서 밀어져가려고 하지 않는 것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신유구에서 본 일본의 순종희씨 목에 비닐노끈으로 이그려진 장통을 매달고 거닐다가 마치 구토라도 하는 듯이 입속의 더러운 과거를 뱉으면서 유유히 인과속을 거닐고 있는 모습이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読에 關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 學術雜誌 預約購読에 關한限 世界の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費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部와 單行本部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費下께서 아직도 冊자와 關聯을 맞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區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

